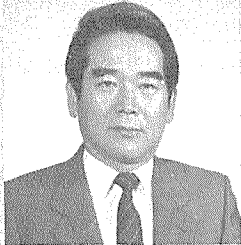


내년부터 유가 전면자유화 7월부터 환율연동제 실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내 석유류가 격을 전면 자유화할 방침이다.

陳稔동력자원부장관은 지난 1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유가를 전면 자유화시킨다는 전제하에 이달중 업계대표와 공동으로 「유가제도개선대책반」을 구성해 오는 3월말까지 유가자유화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陳장관은 『자유화 실시에 앞선 준비단계로 오는 7월부터 국내유가를 국제유가와 환율변동에 따라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환율연동제를 실시, 정유사와 주유소등 생산 및 유통업계가 전면 자유화에 대비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陳장관은 또 유가연동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유사에 대한 손실보전을 마쳐야 하지만 현재의 국제유가추세로 보아 배럴당 1.70달러씩 걷고 있는 석유사업기금 징수액 외에 배럴당 18달러인 도입기준 원유가와와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경우 지난해말 현재 5천2백여억원에 달한 정유사의 손실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환율연동제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陳장관은 또 유가연동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유사에 대한 손실보전을 마쳐야 하지만 현재의 국제유가추세로 보아 배럴당 1.70달러씩 걷고 있는 석유사업기금 징수액 외에 배럴당 18달러인 도입기준 원유가와와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경우 지난해말 현재 5천2백여억원에 달한 정유사의 손실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환율연동제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동력자원부

에너지절약 기금지원
1,633억으로 증액

동력자원부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93년도 석유사업기금 및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의 지원지침을 확정하고 지난 2월 1일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금지원 신청접수를 개시했다.

올해는 석유사업기금에서 1,423억원,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서 210억원등 총 1,633억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작년 지원액 1,150억보다 약 480억원이 확대된 금액이다.

유자대상은 제조업체를 위주로 하는데, 업체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을 설

치·생산하는 경우에 시설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유자대상 에너지절약형 시설은 종래 지원하던 요로·건조기·염색기등 52개 시설에 부가하여 폐기에너지 회수설비(10종), 선박절약설비(4종), 건물절약설비(8종), 전력수요관리설비(4종)등 총 33종을 추가하여 85개 시설로 대폭 확대 하였으며 선박·건물분야 업체까지 신규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에너지절약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도입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늘리고 지역난방, 공단열병합발전등 집단에너지사업 및 주택단열개수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게 된다.

동자부는 특히 유자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저리의 유자지원에 더하

여 금년부터 투자비의 10%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외에 투자비의 45%까지 투자준비금으로 인정하는 등 획기적인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유자조건은 상환기간이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하여 8년이고 금리는 중소기업 5%, 대기업 10%로 지원하며, 유자절차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유자추천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된다.

참고로 기금에 의한 지원외에 은행의 외화대출 및 산업은행 시설자금등 일반 금융지원으로 약 3,400억원 이상을 지원하여 금년의 에너지절약투자에 대한 총 금융지원 규모는 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石油類관련

稅收 2조6천억원

91년비해 27% 늘어 올해 3조 넘을듯

석유류 소비가 크게 늘면서 특별소비세를 포함한 석유류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석유류 관련 세수총액은 2조6천56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돼 91년의 2조5백69억원에 비해 26.7%나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3개 제품에서 거둔 특별소비세가 1조3천9백22억원으로 91년의 1조6억원에 비해 4천억원 가까이 늘었다.

유통단계별로 징수되는 부가가치세는 1조1천3백26억원으로 91년의 9천8백9억원에서 처음으로 1조원대를 넘어섰다.

이에 비해 통관에 부과되는 관세 수입은 8백8억원으로 91년의 7백54억원에 비해 54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관세수입 증가가 다른 세목에 비해 적은 것은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 원유, LPG등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 인터뷰 ■

IEA, 한국에 유가자유화 촉구 정유산업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의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에너지부문에 대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유가를 조속히 자유화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유했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 관한 종합보고서인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내한한 IEA의 헬가 슈테크 사무총장은 지난 1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보고서의 목적은 에너지정책에 관한 선진국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한국정부에 몇가지 점을 권고, 에너지정책 수행에 참고가 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에너지부문의 경우 정부개입을 완화하고 유가구조를 시장원리에 맡기며 정유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슈테크 사무총장은 특히 한국은 에너지가격체제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에너지자원의 최적배분이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적했다.

IEA는 지난 1973년 제1차 석유위기가 일어나자 선진 24개국의 모임인 OECD가 소비국의 처지에서 산유국의 모임인 OPEC(석유수출기구)에 대항하기 위해 1974년에 설립한 기구로 비회원국에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의 낮은 할당관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품별로는 최근 자동차의 폭발적 증가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휘발유에서 특별소비세 1조1천1백55억원과 부가가치세 2천4백90억원이 걸려 휘발유에서만 1조3천6백45억원의 세금이 걸렸다.

또 경유에서는 관세 12억원과 특별소비세 2천1백98억원, 부가가치세 3천1백87억원 등 5천3백97억원이 걸렸고 LPG에서도 관세 47억원과 특별소비세 5백69억원, 부가가치세 1천2백53억원을 합해 1천8백69억원이 걸렸다.

동력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석유류 소비가 연평균 20% 안팎의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추세라면 금년에는 석유류 세수가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西마두라광구 가스田 준공 가채매장량 1800억 입방피트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합작개발한 인도네시아 서마두라광구에서 지난 1월 27일부터 가스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국의 코데코에너지와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社는 이날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현지에서 양국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田 생산시설 준공식을 갖고 사업착수 12년만에 본격적인 가스생산에 들어갔다. 서마두라 가스田은 1천8백억 입방피트의 가

채매장량을 가진 가스田으로 향후 10년간 1천5백72억 입방피트(LNG 환산 3백18만톤)를 생산할 계획인데 이에 따른 수익금 3억5천8백만달러는 두 회사가 1억7천9백만달러씩 나눠 갖게 된다.

서마두라광구 개발사업은 지난 81년에 시작돼 85년에는 하루 1만8천배럴의 원유가 생산되기도 하였으나 경제성이 없어 중단됐으며 86년부터는 가스전개발에 주력해 왔다.

이날 준공된 가스전 생산시설은 가스생산을 위한 해상플랫폼 육상인수기지 및 파이프라인으로 이뤄져 있는데 해상플랫폼에서 육상기지까지는 해저파이프라인이 설치됐다.

93년도 할당관세 운용案
 以下 (30個품목)

**할당관세 품목
 34개로 축소**
 LPG, 경유, B-C유 등은
연장

올해 할당관세품목이 지난해 말 60개에서 34개로 대폭 축소된다.

재무부는 지난 2월 6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93년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확정, 이달 중순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정에서 ▲국내공급이 절대부족한 물품 ▲물가안정에 필요한 물품 ▲제품원가 인상요인이 큰 기초산업의 중간생산재 ▲농수축산물의 경쟁력향상에 꼭 필요한 품목만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선정, 세면대, 아스팔트, 사료용 수수등 26개 품목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2월말로 적용기간이 끝나는 프로판, 부탄, 경유, B-C유등은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현행할당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한채 금년말까지 적용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품목	기본세율 (%)	할당세율 (%)	할당수량
농약원재	9	2	25천톤
요소	9	4.5	70 "
유장분말	20	10	19 "
감자전분	9	6	3.8 "
냉동어류	10	5	120 "
오징어	10	5	70 "
어류의 필렛및 기타어육	10	5	28 "
갑각류	20	10	1,500톤
면사	9	3	18천톤
초산셀룰로스	9	7	수입전량
재생또는반합성스테이플섬유	9	4.5	"
재생필라멘트사	9	2	6천톤
염료	9	6	1,150톤
페로크로뮴	5	2.5	50천톤
페로니켈	5	2.5	18 "
페로실리콘	7	3.5	60 "
슬랩	5	2.5	500 "
빌렛	5	3	800 "
철강제의 관과 증공프로파일	9	6	15 "
고탄소강	9	6	9 "
조동	4	2.5	수입전량
알루미늄괴	5	2.5	"
벤젠	5	2.5	200천톤
이염화에틸렌	5	2.5	130 "
원목	2	1.5	수입전량
제재목	7	3.5	30천 m ³
타피오카칩	20	10	140천톤
조주정	35	10	70천톤
프로판·부탄	5	1	수입전량
경유·벙커C유	5	1	"

以下 (1個품목)

품목	기본세율 (%)	할당세율 (%)	할당수량
산화나켈	2	5	수입전량

油公
 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油公은 최근 전분중전형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개발에 성공, 시험생산을 거쳐 2월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그동안 중질유 탈황 및 분해시설, 종합폐수처리장 등 환경보호를 위한 시설투자를 활발히 추진해 온 유공은 합성수지 사업을 시작한 '90년 초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을 검토하여 오다가 '91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하여 이미 '92년말 3편의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그린폴(GREENPOL)'이란 상품명으로 상업생산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린폴’은 미생물 분해제와 분해 촉진제의 마스터배치(Master Batch)로 이루어져 있으며, 폴리올레핀 수지와 전분을 특수한 방법으로 개칭하여 응용·혼합시키므로 기존 제품의 전분함량보다 더 높은 농도로 제조할 수 있어 기존 제품대비 같은 정량을 사용했을 때 분해가 더욱 활발하여 전분과 수지간의 상용성을 월등히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어 한국화학시험검사소의 검사 결과 제품의 물성 또한 기존 제품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油公

OIL-VAN 사업 본격추진

油公은 최근 오일 밴 구축을 위한 전용 Host 컴퓨터 및 메시지 전송 소프트웨어의 선정을 완료하고 이와 병행하여 유공 통신망인 Y-Noo(Yukong Network)의 구축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등 VAN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8년 국내 최초로 주유소 POS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유업계 전산화를 선도해 온 油公은 기존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오일 밴을 구축한 후 본격적으로 상용 VAN 사업으로 진출한다는 전략 아래 그간 대리점 전산화, 독자적인 주유소 POS개발 및 대리점 온라인 시스템보급 등의 관련업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본격적인 VAN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는 메시지전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油公

디스켓 관리사례 발표회

정보통신운영부는 지난 1월 14일 유공 전 부서장 및 관련사원을 대상으로

**올해 석유수요증가 11.8% 전망
석유의존도는 63.2%로 늘어**

올해 우리나라의 석유소비는 지난해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1차에너지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1차에너지수요는 지난해보다 9.2% 늘어난 1억2천6백24만5천 석유환산톤(TOE)에 달할 전망이다. 이같은 증가율은 지난 9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반면 에너지의 수입의존도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의 93.7%보다 1.1%포인트 높은 94.8%에 달할 전망이다.

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총에너지수입액은 지난해보다 10.5% 늘어난 1백58억1천4백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에너지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의 17.5%에서 올해는 18.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원별로는 석유의 경우 올해에 석유화학시설 증설이 완료되어 나프타등 원료용 수요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9.8%포인트 낮아진 11.8% 증가에 그쳐 5억7천2백만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차에너지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의 61.7%에서 올해는 63.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93 에너지 수요전망

	단 위	1992 (잠 정)			1993 (전 망)		
		물 량	증감율	구성비	물 량	증감율	구성비
석 유	천배럴	511,853	21.6	61.7	572,434	11.8	63.2
L N G	천 톤	3,525	30.8	4.0	4,250	20.6	4.4
무 연 탄	"	12,964	△24.5	5.2	10,721	△17.3	3.9
유 연 탄	"	27,164	9.4	15.5	31,256	15.1	16.3
원 자 력	GWH	56,192	△ 0.2	12.1	54,038	△ 3.8	10.7
수 력	"	4,710	△ 6.8	1.0	5,359	13.8	1.1
기 타	천 TOE	592	△ 4.0	0.5	578	△ 2.5	0.4
計	천 TOE	115,620	12.3	100.0	126,245	9.2	100.0
(전 력)	(GWH)	115,140	10.3	27.1	126,650	10.0	27.8
(도시가스)	백만 m ³	1,967	34.1	2.0	2,451	24.6	2.3

로 디스켓 관리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발표회에서는 ’92년도 QC 활동 우수사례중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사무·정보관리 차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PC/SM 공장 디스켓관

리’ 사례에 대해 본사 부사장을 비롯한 3백여명이 참석하여 디스켓 관리의 방안모색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油公 「유공30년사」 발간

유공은 지난 2월 20일 「유공30년사」를 발간했다.

「유공30년사」는 유공이 지난 30년 동안 국내 에너지·화학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에너지·화학을 중심으로 끝없이 혁신·발전하는 세계 일류 기업'으로서의 유공의 오늘을 살펴보는 한편 유공의 미래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많은 부분이 영상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에 국내에서 나온 타사 사사들과는 달리 단순히 읽는 사사가 아니라 「보는 사사」로서 새로운 사사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총 8편 및 부록을 기본구조로 하여 국내판 4백84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공30년사'는 제1편에서 30년간 유공이 변천·발전해 온 발자취를 총괄적으로 기술하고, 제2편부터 제5편까지는 사업별 연혁과 현황을, 제6편에서는 스태프부의 연혁과 현황을, 제7편에서는 유공 관계회사를 소개하고, 제8편에서는 국내외 경영 환경을 전망하면서 유공의 진로와 미래모습을 그려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30년간에 걸친 유공의 각종 경영자료와 역대 임원 및 간부 임기 일람표, 연표, 정관 등 참고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진으로 보는 유공30년'을 사이사이 적당한 곳에 끼워넣어 유공의 어제와 오늘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유공은 '유공30년사'를 편찬·발간하기 위해 지난 '90년 사사 편찬을 위한 실무조직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91년초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湖南精油

'92 Skill 개발활동 시상식

호남정유는 지난 1월 4일 CU내

Skill 개발활동에 대한 결과발표와 시상식을 가졌다.

부문별 주제 및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수상부문 및 주제	포상내용
최우수상	전산부문 「선박계획 시스템개발」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기술연구소(기술) 「Slop Oil에서 발생하는 Scum 성분의 효율적처리」 영업기획부문의 「주유소 관리자 교육의 체계화, 전문화, 현장화」 사업지원/예산계약부문(1) 「Project 인허가 Manual 작성」 자재/후생부문 「육해상 운송 전담업체의 지정」 공무부문 「회전기계 예방/예측정비 강화를 통한 공정 신뢰성 향상」 정유생산부문 「Flaring Loss 절감」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	총무부문의 「사무실 및 비품배치의 효율성 제고」 인사·인력개발부문 「육성형 인사교과제도 정립」 자금부문 「사내자금의 은행 On-Line을 통한 송금」 운영부문 「미래형 주유소 모델 개발」 종합기획부문 「석유제품 개발빈가 계산 Model」 PP영업부문 「고객관리 및 판매망강화」 사업지원/예산계약부문(2) 「Fox-Base를 이용한 Data관리」 호유에너지(2) 「대리점 기술자본 운영제도 개선」 석유화학생산부문 「신제품 개발(PP-C Pipe Grade)」	상장 및 상금 50만원

京仁에너지

교육담당자 일본연수 참가

경인에너지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6박7일간 그룹 연수원 주관으로 실시된 '93년도 각사 교육담당자 일본연수에 인재육성팀 최원삼대리가 참가하였다.

이번 과정은 그룹 교육 수준의 선진, 국제화를 위한 일본 교육현황을 파악하고 계열사 교육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담당자의 국제화 감각교류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京仁에너지

인재육성 워크샵

경인에너지는 지난 2월 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 인재육성팀 주관으로 사내강사 15명을 대상으로 용인프라 자리호텔에서 WORKSHOP을 열었다.

직원 경력 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3, 4급 사원의 직무수행 능력제고를 위하여 시작되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사내강사 제도의 이번 **WORKSHOP**은 현행강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관리의 효율화 및 강사 자질 향상의 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京仁에너지

인천공장 자동화사업세미나

경인에너지 인천공장은 지난 2월 1일 공정연구실 자동화팀의 주관으로 공장장을 비롯 약 4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정유 및 석유산업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자동화사업 전반에 대하여 포항 공대 양대륙 교수를 초청하여 '공정 자동화 단계'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京仁에너지 인천공장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개최

경인에너지 인천공장은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지난 2월 6일 약 3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척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는 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등의 전통민속놀이로 진행되었는데 각 종목별 성적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윷놀이
 - 우 승 : 안전환경부
 - 준우승 : 공정연구실
- 제기차기
 - 우 승 : 정유정비부A팀
 - 준우승 : 실험실
- 널뛰기 부문
 - 미혼자 1위 : 최미정
 - 2위 : 전은영
 - 기혼자 1위 : 이금순
 - 2위 : 임종숙

호남정유 임원 16명 인사이동

호남정유는 지난 1월 1일자로 자회사를 포함한 임원 인사이동을 다음과 같이 단행했다.

□ 승진

- ▲ 박갑용 석유화학담당 전무이사
- ▲ 정영희 기술연구소장 (전무이사급)
- ▲ 정경섭 기술연구소 기술담당 부소장 (상무이사급)
- ▲ 성준용 기술연구소 연구담당 부소장 (상무이사급)
- ▲ 최영재 신규사업설계담당 이사
- ▲ 정중수 지사담당 이사
- ▲ 박종철 전산담당 이사
- ▲ 한기수 공무담당 이사
- ▲ 허진수 본사소매담당 이사
- ▲ 문수동 호유에너지 수급담당 상무이사 (이사급)
- ▲ 양재관 호유에너지 영업담당 상무이사 (이사급)

□ 승진/전보

- ▲ 이백운 방향족영업담당 상무이사
- ▲ 김상배 인사담당 상무이사

□ 신규선임

- ▲ 허정명 관리(생산) 담당 이사대우
- ▲ 정천수 감사실 이사대우
- ▲ 박원표 전략기획담당 이사대우

京仁에너지 박완식부장 등

TP-M 일본연수 참가

경인에너지는 지난 2월 14일부터 6박7일간 그룹 경영기획실 주관으로 실시된 TP-M 일본연수에, 본사 경영혁신팀 박완식부장과 이창희차장이 참가, 일본 기업의 경영혁신운동 추이 파악과 TP-M(Total Productivity Management) 대한 종합적인 개념정립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수는 '92 TP-M상수상사례 발표와 우수사례 발표등 TP-M 수상업체인 라이온 川崎工場('88년 수상), 日立製作所('92년 수상), 중공업 회사등의 기업방문과 세미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쌍용정유

93년도 그룹연수원 교육 확정

올해 쌍용정유의 그룹연수원 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쌍용정유는 각 부문별 희망과정 파악후 연수원과 협의할 예정인데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

경영관리교육(17개 과정), 직무계발교육(11개 과정), 쌍용문화교육(4개 과정), 해외연수(13개 과정) 및 해외 유학과정 등 총 46개 과정

▲ 교육대상

- 경영관리교육 : 임원~사원 각 계층별 교육대상자 의무이수
- 직무계발/쌍용문화교육 : 각 부서

쌍용정유 온산공장 92년 원유1억배럴 처리



쌍용정유 온산공장은 작년 한해동안 공장 상업가동 이래 최초로 원유를 1억배럴 이상 처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원유 1억 배럴 처리실적은 연차정비 작업기간을 제외하고 쌍용정유의 최대처리능력의 90%이상을 연중 유지한 것으로 생산시설증설 이전의 3년 이상 처리한 물량에 해당한다. 이 기록은 1억배럴이라는 단순한 물량의 의미보다는 생산시설 증설에 걸맞는 출하저장시설의 증설없이 이루어졌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사원

- 해외연수 : TOEIC 550점 이상자 사우중 해당 임원이 추천하는 사우 연수원 선발절차에 의거 최종 확정.
- 해외유학 : 신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기술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분야 박사과정.

극동정유 대산공장 제안상 시상식 개최

극동정유 대산공장은 지난 2월 10일 공장내 종합강의실에서 제안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 노력상에는 운영

부 박선기 대리의 5명이 창의상에는 생산1부 채 운표의 13명이 각각 수상하였으며 제안우수 부서에는 동력부가 선정되었다.

이 시상식을 통하여 업무능률향상과 경비절감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극동정유 교육훈련 안내서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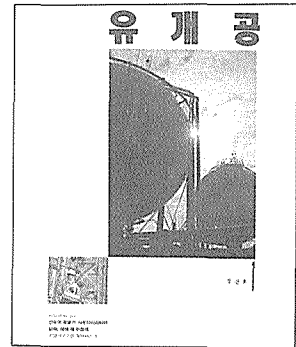
극동정유는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더해가고있는 기업환경에 발맞추어 「교육훈련 안내서」를 발행하였다.

이 책의 발행목적은 회사임직원들에게 회사의 인적자원 개발의 방향과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있으며 '93 교육훈련 중점추진사항, 교육훈련 실시일정표, 인적자원개발지침등의 교육에 관한 전반적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자기개발능력에 열의를 가진 모든 임직원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유개발공사 사보『유개공』창간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지난 1월 10일 사보『유개공』창간호를 발간했다. 사보『유개공』은 월간으로 매 10일 발간된다.

사보 창간으로 석유개발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 및 관련단체에도 알림으로써 유개공인의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보『유개공』의 창간으로 새로운 사내 의사전달 통로를 마련한 유개공은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산유국의 꿈'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협회 인사>

□승진

▲기획부 조사과 대리 趙贊衍 (2.1 자)